



필리핀, 한국산 열처리 돼지고기 수입 금지 해제

2025년 5월 5일/ 농무부/ 필리핀.

<https://www.da.gov.ph>

2025년 5월 6일 (2일 전)

농무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한국의 안전 프로토콜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 평가와 과학적 검증을 거쳐 한국산 가공 돼지고기 제품의 수입에 대한 임시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농무부 장관 Francisco P. Tiu Laurel Jr.가 발행한 명령 제23호에 명시된 이 결정은 높은 수준의 열처리를 거친 돼지고기 제품의 반입을 허용합니다. 이 열처리는 밀폐 용기에 담아 Fo 값이 3 이상이거나, 최소 섭씨 70도에서 30분간 가열한 것입니다.

원래 제한 조치는 2019년 DA 명령 제26호에 따라 부과되었으며, 해외에서 ASF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역 가축을 ASF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농무부는 2025년 4월 8일자 수입위험분석(IRA)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을 재검토했습니다. 분석 결과, 한국산 수출용 살균 돼지고기 제품은 세계동물보건기구(WHO) 기준을 충족하며 "안전한 상품"으로 간주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IRA는 한국의 탄탄한 수의학적 감독 및 ASF 방역 시스템을 강조하고, 수입 제품의 유통기한과 안전한 포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보장을 바탕으로, 한국산 살균 돼지고기 제품은 기존 필리핀 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필리핀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돼지고기 제품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양국 간 농업 무역 관계의 잠재적 해빙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